

전환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체성의 확립과 지도자의 역할



황 민 영 상임대표
국민농업포럼

1. 한국 농업 · 농촌의 현실

오늘 한국농업, 농촌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한국 농업 · 농촌의 최대 위기로 규정짓고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농업 · 농촌을 에워싸고 있는 국내외적 주 · 객관적 조건, 정세들이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 방안이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개방화, 세계화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급속하게 개방되어감에 따라 농산물의 수급,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이로 인하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촌경제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석유 등 에너지자원을 필두로 광물 등 원자재자원 확보가 국가간 최대 이슈로 등장하면서 자원 확보경쟁이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밀 · 보리 · 옥수수 · 콩 등 식량자원,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농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일부 비교 우위론자들이 돈만 있으면 식량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된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 중대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고, 뿐만 아니라 물 · 생태 · 환경 · 공기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에 더하여 농촌은 산업인 농업공간으로서, 전통 · 문화공간으로서, 레저 · 휴식 · 주거공간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할 때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농업 · 농촌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매년 정체 내지 소폭 감소추세이고,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와 함께 농업 ·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농가 경영체를 이을 후계세대의 단절이다. 한국농업의 미래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수한 젊은 영농인의 지속적 확보 여부는 농정의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도 · 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농촌지역공동체의 공동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금까지의 농업위주의 생산농정중심에서 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농촌정책과

함께 복지정책, 그리고 식품정책을 농정의 범위에 포함하여 큰 틀에서 농정의 대전환을 꾀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농림부를 수산과 식품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로 형식과 내용을 변경하면서 농정의 새 틀을 짜고 있다.

특히 그동안 1차 산업인 어업·어촌·어민정책이 농업·농촌정책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농, 가족농업이 중심인 농업조건에서는 가공산업, 유통산업, 그리고 판매, 서비스업까지, 즉 1, 2, 3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경영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도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는 무성했지만 이러한 일을 위한 법·제도·정책면에서 농수산업·농어촌이 종합적으로 정책화되지 못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정이 되지 못했다. 이제 겨우 틀을 갖추게 된 셈이다.

2. 한국 농업·농촌의 과제

농업은 산업이고, 농민은 그 담당자이다.

농업은 최고의 기술과 경영을 통하여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최고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높은 값에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농산물, 식품시장은 완전히 세계시장에 개방되었다. 이제 한미FTA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FTA가 체결되면, 그 개방의 정도는 더욱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우리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최고의 농산물, 최고의 식품을 생산하고, 또한 유통·판매과정에서 최고의 가격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생산, 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농업경영에 있어서 토지·자본·기술이 기본조건이지만,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인 오늘에는 무엇보다 유능한 인적자원이 갖추어 있어야 최고의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사람,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농가별 생산성 격차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품목에 따라서 상위 10% 농가가 하위 10% 농가에 비하여 농업생산성이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배 15.1배, 양파 11.4배, 사과 10.5배)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의 기술,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이제는 지금까지의 생계형 전통농업을 첨단기술, 경영기법을 통하여, 농업의 복합경영, 시장지향, 소비자 지향, 안전지향의 현대적 농업,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고 유능한 진취적 농업인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하나의 소규모 농업경영체로서는 개방화 시대, 거대한 시장,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농업과 같이 영세소농구조가 특성이 불리한 조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정부가 그동안 구조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도 농가 호당 경지구모는 평균 1.5ha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웃 일본 농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구조조정정책을 통하여 경영규모를 기대한 만큼 확대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구조농정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로 경영·시장·자본이 거대화 되면서, 소자본·소경영으로는 거대자본·거대경영에 대항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협동경영, 협동조합경영이라는 경영방법을 채택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특히 협동조합은 약간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경영의 틀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민의 사

회·경제·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생산의 협동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통·가공·판매 등 다양한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노력, 즉 시대적 요구를 감당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농협은 그동안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 농업·농민의 문제, 농민조합원의 필요·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사업, 경영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세월 농협의 개혁운동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농협개혁은 농정개혁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3.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정체성

이제 우리 농정의 화두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그리고 전문화, 협동화, 복지화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창립 목적, 그리고 강령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농기협은 1960년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암울한 시기인 60년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기초로 63년 제4회 대회에서 농기협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상허 유석창 박사를 추대한 이후, 류달영 박사, 정장섭 선생, 강춘성 선생을 지도자로 모시고, 반세기의 농업의 시대정신인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보릿고개 시절 절대 빈곤으로부터 농민을 탈출하도록 하는데 정말로 혁혁한 업적을 이룩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60년은 4·19혁명이 일어난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해이고,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80불도 되지 않던 매우 가난한 시기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도를 했지만 4·19혁명의 성공으로 민주화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꿈을 현실화 하려는 열망이 고조되던 시기에 종묘기업이 주체가 되었지만, 농기업대회를

개최한 일은 농업분야의 혁명적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농기업의 목표, 강령이다.

하나,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민의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를 이룩하자

하나,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업의 기술혁명으로 과학적 전문화를 이룩하자.

하나, 우리는 선도농가다.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자.

이러한 농기협의 목표, 강령은 반세기가 된 오늘에 반추해 보아도, “선도농가”의 성과와 이들이 실천해 나아가야할 목표의 지향적 과제로서 오늘의 농업·농촌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부족한 점이 없다.

그것은 회원인 “선도농가”들이 다른 농민들에게 정신·기술·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민주적 협동화, 과학적 전문화,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을 서고 헌신하자는 큰 뜻을 담고 있는 점이 미래를 내다보는 탁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농기협은 세 가지 창립목표인 정신·기술·생활의 혁명에서, 둘째인 기술혁명을 선도하는데 크게 기여한 업적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첫째의 정신혁명, 셋째의 생활혁명과 관련된 사업은 기술혁명을 통한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농업·농촌문제 있어서 기술은 하나의 중요한 수단, 필요수단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기술발전을 통하여 생산성을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으로 교환되어야만 지속적 재생산, 확대재생산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교육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교육, 정치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시현될 수 있는 정신교육이 기술교육의 비중만큼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농기협은 그간 이런 점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정신, 의식혁명을 통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농업, 농촌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협동화를 이룩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주의, 상생하는 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는 농기협의 창립정신은 오늘에 더욱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이룩하자는 목표를 지금이 아닌 60년대 초에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기울였다는 점도 매우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농정에서 복지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야 구체화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혜안이 아닐 수 없다.

4. 21세기 농기협의 과제와 간부의 역할

농기협은 한국농업, 농촌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만큼 새로운 사고와 사업 그리고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날 농기협의 찬란한 업적 역사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일의 형식과 내용에 안주할 수 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이를 전환기로 진단할 수도 있고 위기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이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농기협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농기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가 긴 것만큼, 문제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기협의 역사에 있어서 잘한 역사도 잘못된 역사도 농기협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농기협의 모든 회원들의 역사이다. 어느 개인 또는 간부·임원만의 역사가 아닌 농기협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책임이고, 영예이다라는 공동체적 인식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임원의 몫, 할 일이 있고, 간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책임과 역할도 다시금 정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조직의 발전에 있어 사무국 요원들의 자세 역량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기협이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회원들의 참여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농기협의 사업들은 농기협 회원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소홀이 취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행사, 사업의 참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회원의 구성이 농기협의 역사만큼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젊은 농민, 전문농업인, 지역활동가, 도시의 농업전문가, 또는 학자, 농기업가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 참여시키는 조직의 틀을 그동안 고민도하고 실천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기협의 조직이 오래된 만큼 회원구성원도 노쇠화 되어 있는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농기협의 지금까지 사업은 교육과 출판, 연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과의 인적교류 사업이 다른 조직, 단체에 비하여 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도 일반화되고 있다. 오히려 농기협의 차별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전문성, 실용성, 차별성 있는 교육, 연수, 출판 활동이 계획적,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농기협이 최근 도농교류, 녹색체험, 귀농과 관련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이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가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

가 형성될 수 있는 사전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회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

농기협의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역량은 간부,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더욱 중요한 힘은 사무국 요원의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나 농기협의 사무국은 오늘 농기협의 혁신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음을 지도부는 깊이 생각하고 유능한 일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책임도 있다.

모든 조직은 활동을 위해서 자금, 재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기협은 타 단체에 비하여 회원들의 열정, 농민들의 사업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충분치는

않지만 근검절약하는 살림을 꾸려 왔다. 그러나 최근 농기협 회관 운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국 운영, 사무국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정도이다.

이제 농기협이 새회장, 지도부의 취임에 따라 일신된 마음과 자세로, 농기협의 새비전을 세우려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각오도 새로워야 한다. 그러나 농기협의 역사가 훌륭한 만큼, 변화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뜻을 한데 모으기만 하면 위기를 넘어 다시 한 번 한국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 특히 회원들의 바램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㉞



▲농기협 지도자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 선서



▲농기협 지도자 워크숍에서 황민영 대표 강의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